

동해시 인구감소 대응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 출장기간 : 2024.5.31.(금)~6.4.(화)/ 4박5일
- 출장지역 : 일본 홋카이도
- 출장인원: 12명(의원 6명, 공무원 6명)
- 출장내용
 - 동해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복지, 도시재생, 고향납세, 인구유입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



동 해 시 의 회

동해시 인구감소 대응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I 공무국외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24. 5. 31.(금) ~ 6. 4.(화) / 4박 5일
- 방문국가 : 일본(홋카이도)
- 연수단명 : 동해시의회 인구감소 대응 정책개발 연수단
- 연수목적

우리시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율 22%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복지사례와 지방창생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복지, 정주환경, 고향납세, 인구유입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

- 연수단 구성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역 할	비고
동해시의회	의장/ 단장	이동호	연수단 총괄 / 농업경쟁력강화 방안 연구	
	의원	최이순	도시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 대책 연구	
	의원	안성준	고향납세제 활용 방안 연구	
	의원	정동수	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연구	
	의원	김향정	아동복지 및 교육정책을 통한 인구유입방안 강구	
	의원	민귀희	양국 노인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 방안 연구	
	의회전문위원	한만영	연수단 지원 총괄	
	정책지원관	박찬호	일본 지방창생제도 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지원	
	정책지원관	이승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지정책 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지원	
	주무관	우채미	고향납세제 자료 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연구 지원	
	주무관	김기범	연수단 활동 일일보고 및 기록	
주무관	심도진	기관방문 협의 및 회계·행정 지원		

○ 주요일정

일시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방문기관 및 업무수행내용
5.31(금)	인천	일본 홋카이도	항공 및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5 인천국제공항 출발 (KE765) ◎ 12:45 치토세국제공항 도착 ◎ 히가시가와정(사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東川町複合施設센토피아II, 東川町北町1-1-2 - 대응 : 東川町企画総務課 佐々木主幹 - 마을만들기 사업, 인구감소 극복, 교육정책 고향납세제 운영 벤치마킹
6.1.(토)	-	일본 홋카이도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가시가와정(사진마을) 자유 견학 :그린빌리지, 아웃도어숍, 도초관, 전망대 등 ◎ (현장견학) 삿포로 오오도리 공원 :도시경관 정비 우수사례 벤치마킹
6.2.(일)	-	일본 홋카이도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루루노 모리(홋카이도 최대 농산물직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北広島市大曲377-1 - 농업이 가공·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6차산업 사례 벤치마킹 ◎ 오타루시(도시재생사례) :오타루운하 재생 현장, 공방거리, 공예전시장 답사
6.3.(월)	-	일본 홋카이도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견학) 삿포로 맥주박물관 및 공원 ◎ 코코르크 에베츠(장애·노인요양시설/생애활약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江別市大麻元町157 - 대응 : 아카시 코디네이터, 사사키 코디네이터 - 장애·노인 복지 및 장애인 자립 사례 수집
6.4.(화)	일본 홋카이도	인천	항공 및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에서 공항으로 이동 ◎ 14:05 치토세국제공항 출발 (KE766) ◎ 17:05 인천국제공항 도착

Ⅲ 사전준비회의

□ 공무국외출장 준비 회의 (1차)

- 일시/ 장소 : 2023. 3. 27. / 의장실
- 참 가 자 : 이동호 의장, 최명관 부의장, 민귀희 의원, 이창수 의원, 최이순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의회사무과장 외 2
- 회의내용
 - 공무국외출장 진행에 따른 기본방침 등 공유
 - 관심분야(지역소멸 대응, 선진농업, 고향납세, 해안침식, 관광)에 따라 출장국을 일본으로 결정



□ 공무국외출장 준비 회의 (2차)


- 일시/ 장소 : 2023. 4. 4./ 의장실
- 참 가 자 : 이동호 의장, 최명관 부의장, 민귀희 의원, 이창수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의회사무과장 외 3
- 내용 : 출장자 업무분야 결정, 출장 일정 확정 및 수집자료 공유

□ 공무국외출장 준비 회의 (3차)

- 일시/ 장소 : 2023. 5. 26./ 의원응접실
- 참 가 자 : 이동호 의장, 민귀희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의회사무과장 외 3
- 내용 : 일본 방문 도시 및 도시별 주요 견학 기관 설명 등 방문기관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논의

Ⅲ 기관 방문 및 시찰 내용

1 히가시가와정

기관명	히가시가와정(東川町)	
방문일시	2024. 5. 31. 16:30	
장소	東川町複合施設센토피아Ⅱ, 東川町北町1-1-2	
참석자	다카노리 후지 기획총무과 과장 외 2명	

■ 기관 소개

- 홋카이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약 8600명 규모의 마을. 동쪽은 산악지대로 일본 최대 자연 공원인 ‘다이세쓰 산 국립공원’ 구역의 일부. 풍부한 산림자원과 훌륭한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 높게 평가받음.
- 대도시로부터 편리한 접근성
 - 하네다 공항에서 마을까지 약 2시간
 - 아사히카와 공항에서 마을까지 약 10분
 - 아사히카와 역에서 마을까지 약 30분
- 6가지 키워드를 통한 마을의 특색 · 특징

사진의 마을	▪ 1985년 ‘사진의 마을’ 선언 ▪ 히가시가와정 국제사진페스티벌 개최
물이 풍부한 마을	▪ 다이세쓰산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수자원 ▪ 상수도가 없는 마을
다이세쓰산	▪ 다이세쓰산 국립공원과 최고봉 아사히다케 일부 보유
쌀의 마을	▪ 고품질 브랜드쌀 ‘히가시카와쌀’ ▪ 콘테스트 최고 금상 수상
목공가구의 마을	▪ ‘아사히카와 가구’의 생산비율 30% 차지 ▪ 너의의자 프로젝트
여유로운 공간을 중시하는 마을	▪ 25년간 인구 증가가 완만한 마을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태도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 다카노리 후지 기획총무과 과장)


- ‘사진의 마을’ 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히가시가와정의 마을 만들기
 - 일본의 ‘일촌일품 운동’ 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특산물을 내세울 때 히가시가와정은 경제적인 특산품보다는 ‘문화’ 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옴. 21세기를 향하며 ‘마을 주민이 참가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 ‘사진’ 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시작하고, 1985년 ‘사진의 마을’ 을 선언하였으며, 2014년 ‘사진 문화 수도’ 를 선언하였음.
 - 사진의 마을 목적 :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을 중요하게 여길 것
 - ① 사진으로 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② 사진으로 담기 좋은 사람 만들기
 - ③ 사진으로 담기 좋은 물건 만들기
 - ‘히가시가와정 국제 사진 페스티벌’ : 여름 약 한 달에 걸쳐 개최되는 사진 축제로서 국내외로부터 사진작가나 관계자를 초청하여, 사진의마을 히가시가와상 수상식을 비롯해 사진전이나 포럼, 포트폴리오 리뷰 등이 열림.
 - ‘사진고시엔’ : 일본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우수학교 18곳이 히가시가와정에 모여 고등학교 사진부의 정점을 결정하는 전국 사진 대회로서 매년 여름 고등학생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짐.
 -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35년간 정책이 이어지며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인구 8,600명의 모자란 인적자원이었지만 마을 내·외부의 인적자원이 서로 교류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함.
 - 더불어 ‘사진의 마을’ 선언에 대해 의회에서 근거를 만들고 의결해주는 절차가 있었기에 40년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히가시가와정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한 열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에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음.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마을’ 을 중심으로 인간과 문화, 자연을 소중히 여겨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마을 주민들과 관계인구를 생성하며 마을만들기를 이어가고 있음.

○ 히가시가와 주주제도 - ‘고향납세’ 가 아닌 ‘고향주주’ 라는 생각

- 히가시가와정의 고향납세인 ‘히가시가와 주주제도’ 는 히가시가와정을 응원하고자 하는 분이 마을에 투자(기부)를 통해 ‘히가시가와 주주’ 가 되어, 함께 마을의 미래를 키워가는 것을 취지로 임하고 있음. 작은 마을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기 위해 모든 주주와의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겨 주주로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음.

주주증 발행	주주 한정 기획 안내	주주 전용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기부)를 제공한 주주에게 주주증을 발행함. ·주주증은 히가시가와 마을 내 다양한 시설을 우대받아 이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가 되면,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주한정 기획상품도 개발함 ·기획상품 예시 히가시가와 와인 천연지하수로 키운 햅쌀과 신선한 야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엔 이상 투자(기부) 해주신 주주에게는 마을 내 지정시설을 연간 2박 무료 숙박을 제공 ·키토우시 삼림공원 케빈을 반값에도 이용 가능 ·주주전용 숙박시설도 준비되어 있음

- 투자자는 마을에서 선정한 프로젝트 중 투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할 수 있음. 현재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일반화되었지만 히가시가와정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크라우드펀딩 형식이 없고 특산품 판매형식이었음. 특산품 판매형식이 초기에 경제적으로 자치단체에 도움이 많이 되긴했지만, 히가시가와정은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외부의 사람들을 관계인구(생활인구)로 늘리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함.

관계인구란?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중간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교) 우리나라의 생활인구

- 그 이유는 ‘사진의 마을’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임. 기부를 위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주민들에게만 이득이 있는 사업이 아닌 기부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함. 예를 들어 초등학교 무상급식 프로젝트의 경우 마을에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마을에서 찍는 영화 제작사업을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기부자에게도 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이렇듯 기부자와 자치단체가 상호 소통하고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히가시가와정의 팬이 되는 방식으로 주주제도를 전개하고 있음.
- 실제로 마을의 인구가 8,600명 정도인데 반해, 특별주민증과 주주증을 중복으로 갖고 있는 기부자를 포함하면 1백만명에 달하는 성과를 내면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고향납세의 연장선상으로 기업관 고향납세 제도가 진행중이며, 정식 명칭은 ‘지방창생 응원 세금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이 응원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여 기부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히가시가와정은 이러한 기업관 고향납세제를 ‘공식 파트너 제도’로 명명하고, 2019년부터 지방이나 일본, 세계의 미래를 육성하는 사회가치의 공동 창출을 목표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
-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29개의 기업과 파트너를 체결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이 지닌 인재·기술·노하우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음.

○ 태어난 아기에게 의자를 주는 ‘너의 의자’ 프로젝트

- 히가시가와정의 ‘너의 의자’ 프로젝트는 아사히카와 대학의 이소다 겐이치 교수의 세미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시작한 프로젝트임.
- 일본의 3대 가구인 아사히카와 가구는 양질의 홋카이도 목재를 사용하고, 뛰어난 디자인으로 일본의 5대 가구 생산지 중 한 곳으로 유명함. 그 중 약 30%는 히가시가와정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서는 목공예 뜻을 둔 젊은이들부터 수십년 된 베테랑까지 다양한 세대에 걸친 장인들이 모여 있음.
- ‘너의 의자’ 프로젝트는 매년 선정되는 의자 디자인을 마을 내의 공방에서 제작하여,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새겨서 보내줌. 아이들이 3살 무렵까지 사용하게 되는 의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가 오지만,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싶은 바람은 의자에 간직된다는 취지임.
-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인구 35만의 아사히카와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태어나는 인구가 많아 실행되지 못했지만, 히가시가와의 출생인구가 년 50명으로 수가 적당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을의 이념도 맞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음. 현재 히가시가와정의 사업 성공으로 참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히가시가와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경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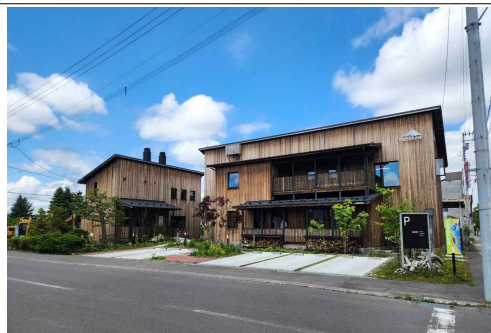
- 히가시가와정은 2002년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보전과 경관 형성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 주민, 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풍경만들기를 추진함. 2005년 3월에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행정 단체가 되었고, 환경을 생각한 히가시가와풍 주택 건축을 권장하고 있음.
- 그린빌리지 : ‘히가시카와풍 주택설계지침’을 기반으로하여 정원의 식재, 목재 이용, 지붕 모양 및 색, 외벽의 색, 담장이나 울타리 제한, 기름탱크 가리기 등 아름다운 거리 실현을 위해 각 세대가 노력해야 할 세부규정이 있음. 집을 짓고 이주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눈썹임 방지를 위해 지붕은 삼각형 형태를 띄어야 하고, 자연의 색으로 외벽을 꾸미는 등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규정에 맞는 집을 지을 때 200만엔, 차고 50만엔, 난로 설치 50만엔, 소파 구입 10만엔 등 세세하게 규정되어 이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음.



히가시가와풍 주택설계지침,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유휴부지는 공용공간으로 활용



마을내 점포도 지침을 지키고 있다

○ **일본내 최초 유일의 ‘공립’ 일본어학교를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

- 히가시가와 공립 일본어학교는 ‘사람·물건·일’의 상호작용에서 펼쳐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단기일본어·일본문화 연수사업이 확대되어 기존의 학교건물을 활용하여 2015년에 개교함. 지금은 마을의 국제교류사업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을이 목표로 하는 ‘여유롭고 적당한 마을만들기’나 **관계인구의 증가에도 공헌하고 있음.**
- 유학생의 출신지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하며, 지금까지 일본어 학교를 수료한 연수생은 단기와 1년 코스를 합쳐서 4,000명에 달함. 졸업생의 대부분은 일본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또는 모국으로 돌아가 일본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음.
- 유학생의 출신지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하며, 지금까지 일본어 학교를 수료한 연수생은 단기와 1년 코스를 합쳐서 4,000명에 달함. 졸업생의 대부분은 일본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또는 모국으로 돌아가 일본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음.
- 마을에서는 「히가시가와 다문화 공생실」에 국제교류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민과의 교류나 자원봉사·이벤트 외 유학생의 취직지원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음.



다문화 공생실 견학



학교건물을 활용한 공립일본어학교

■ 주요 질의응답 내용

질문	주요 답변 내용
<p>히가시가와 주주제도가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의 상황으로 오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기부금이 꽤 많이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은 답례품의 종류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큼니다. 마을의 식자재 답례품목이 쌀 말고는 없고, 매해 수확량이 달라지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져 다른 품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히가시가와 주주제도로 1백만명의 주주가 모아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데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부분만 개발하여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는 여러 부분을 연결지어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주주제도의 홍보 같은 경우는 주주제도만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프로모션도 계획하고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이 투자사업에 대해 문의할 때도 최대한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향후 영향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p>히가시가와 주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투자할때부터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발전이 눈에 보이고 주주총회와 같은 피드백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p>노인인구 추이를 보면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젊은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를 균형있게 유지하자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구자체를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사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너의 의자와 같은 육아정책의 방향이나 교육정책,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 등 젊은 인구의 육아 정서와 맞는 사람들의 유입이 인구를 유지하게 된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위해 동해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방안을 내세웁니다. 히가시가와만의 유입방안이 있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마을에 이주해 오신 분들 중에는 이 마을에서 일하고 싶다고보다는 이 마을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이주해오십니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공간의 제약없이 일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이주해 오십니다. ·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환경이 나빠지거나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마을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보다는 마을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을 모시자에 포인트를 두고, 마을의 가치와 매력을 조금 더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p>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정착지원금이 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를 조건으로 하는 정착지원금은 일절 없습니다. 대신 건물을 지을 때 히가시가와풍 건축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따라 주시는 분들에게 항목별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풍경을 유지하고, 지원받는 분들은 원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일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며 25년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히가시가와정은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마을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위기감에서 고민이 시작되었고, 교육이나 목공, 쌀, 주주제도 등 한 분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연결되었다는 전제하에** 공통된 방향과 취지로 정책을 펼쳐 인구유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적은 인적자원과 철도, 국도, 상수도가 없는 한정된 인프라의 마을임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을 외부와 교류·소통·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정책의 일관된 방향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사진마을’**이라는 주제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해 온 정책들이 성과를 냈다는 것에 공감하며 **우리시의 정체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음.
- 특별시민증 발급, 히가시가와풍 건축 양식과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육아 정책, 이해하기 쉬운 홈페이지 구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본어학교 운영방식 등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짐을 모든 연수단원들이 공감했고 이런 부분이 히가시가와의 팬을 만들고 있었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자치단체가 경쟁적인 금전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시의 시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동을 선사하는 육아·이주 지원제도의 개발,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관계인구 증가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인구가 늘고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대한 색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함.

방문 사진



간담회 진행



역대 '너의 의자' 모델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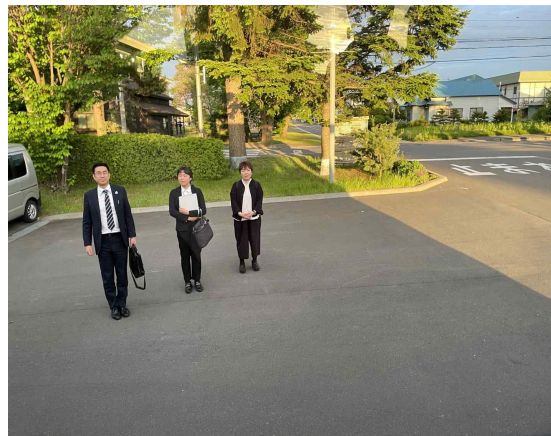
동해시 기념품 전달



모든 연수단원에게 특별주민증 수여




연수단 단체사진



환송까지 정성을 다하는 공무원들

2

코코르크 에베츠

기관명	코코르크 에베츠 (CCRC 에베츠)	
방문일시	2024. 6. 3. 13:30	
장소	江別市大麻元町157	
참석자	아카시 코디네이터 사사키 코디네이터	

■ 기관 소개

○ 코코르크 에베츠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일본 홋카이도 에베츠시 (인구 12만명, 강릉시의 자매도시)
개설시기	2017년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협력
입주대상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주요시설	그룹홈 등 주거시설, 온천, 식당, 보육원, 빵공방
주요활동	건강관리, 문화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 시설 조성 경과

년도	내용
2017년	3월 에베츠관 「평생활약의 거리」 구상 책정
2018년	8월 사업자 결정 (사회복지법인 일본 개호 사업단)
2019년	6~10월 단체 등への 출전강좌, 근린 단체에 사업 개요의 설명 10월 홋카이도, 에베츠시, 사업자 3자 「공생형 지역만들기 추진 협정」 체결
2020년	6월 건축공사 개시 7월 ‘평생활약의 거리’ 명칭 결정 ‘코코르크 에베츠’ 8~10월 시민 워크숍 개최
2021년	3월 시민설명회 개최 4월 일부 시설 오픈(장애인 그룹홈, 빵공방, 레스토랑, 목욕시설) 9월 전면오픈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 아카시 코디네이터)

○ 「에베츠시 평생 활약의 거리」의 명칭

- 「코코르크」를 거꾸로 읽으면 「쿠르크코(온다, 여기)」가 되어, 어떤 상태가 되어도 희망에 넘친 충실한 거리, 평생 활약의 거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음. 더불어 CCRC(은퇴자 마을, 실버타운)을 일본어로 읽으면 코코르크라고 읽을 수 있어, 누구라도 친밀한 프레이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명명함.

○ 코코르크 에베츠 시설 설명



- 일본은 2015년에 지역 내 거점공간 활용을 위해 「평생 활약의 거리 구상」을 발표했고, 에베츠시는 지역 특성이나 인구 감소 등의 과제를 근거로 시내에 사는 에베츠 시민이 평생에 걸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개발과 젊은층·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와 교류할 수 있는 「공생의 거리」실현을 위해 2017년 「생애활약의 거리」구상을 시작했음. 그런 구상에 의해 삿포로 맹학교 터의 일부를 중심으로 한 오사(大麻)지구 타운형 모델을 추진해, 오사지구로부터 에베츠시 전체에 파급시켜 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코코르크 에베츠」의 목표는 누구나 교류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 「코코르크 에베츠」의 세가지 목표 중 첫 번째는 ‘지역에서 평생 동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있다고 본인이 살던 공간을 떠나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살던 마을에서 케어를 받게 하자는 취지임.
- 두 번째 목표는 어린이나 젊은층,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임.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로 마을을 구성하여 나중에 회복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자는 취지임.
- 세 번째 목표는 개호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에베쓰시, 자치회, 시내 4개 대학, 기업 등이 제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목표임. 이는 4개의 대학과 주변의 개호(간호)인력 소개소에서 활발하게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키며, 물품기부와 재능기부 등으로 시설과 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침.
- 종합적으로 시설에서의 단순한 재활치료의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런 이유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온천, 빵공방, 레스토랑, 보육원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감. 이러한 목표는 센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워크숍과 설명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지사, 시장, 사업단이 「공생형 지역 만들기 추진에 관한 협정」을 맺으면서 만들어진 목표임.



「공생형 지역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협정 체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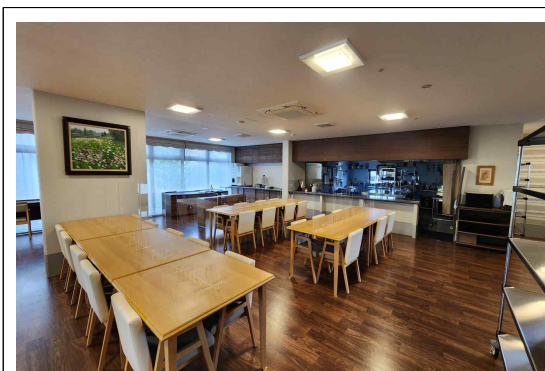
○ 장애인 그룹홈과 장애인 취업지원시설

- 마을 내 남녀 입주정원 각 10명의 장애인 그룹홈 「나카마」 고베츠가 있어, 입소 신청한 장애인이 자체적인 심사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입소하게 됨.
- 장애 정도는 무관하며 낮시간 동안 교류시설에서 취업지원 활동을 하는 장애인도 입주할 수 있고 단기 입소용 객실도 마련되어 있음.
- 입소비용은 기본 20만엔으로 가족의 부양능력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입소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나라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 비용이 결정됨.
- 「코코르크 에베츠」에는 별도의 퇴소 기준이나 나이가 없으며, 본인의 의지대로 재활을 통해 자립이 가능하게 되면 다시 지역사회로 진출하게 됨. 또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사노와 빵공장, 온천시설,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장애인이 실제 취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p>장애인 그룹홈 나카마</p>	<p>장애인 취업지원 사례- 온천 업무</p>
	
<p>장애인 취업지원 사례- 빵공장 제빵</p>	<p>취업 선배로서 학생들의 인터뷰 진행</p>

○ 고령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인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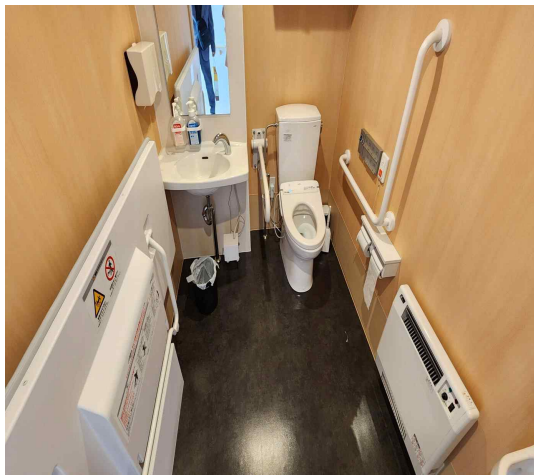
- 코코르크 에베츠의 노인입소시설은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음. 거동이 가능하고 간단한 점심식사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노인, 거동이 불편하여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공동공간을 드나들 수 있는 노인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시설이 **특별양호노인홈, 그룹홈**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만약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거동이 가능하게 되면 같은 마을 내 다른 시설로 이전도 가능하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 노인day-service를 이용하기도 함. 이렇게 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케어 수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이사나 적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줌.
- 시설 내에서는 의료서비스도 가능하며, 식사·목욕·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재활프로그램도 실시함. 코코르크 에베츠의 경우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인근 학교나 보육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고령자 주택 공간 / 공용공간



고령자 주택 공간 / 간단한 주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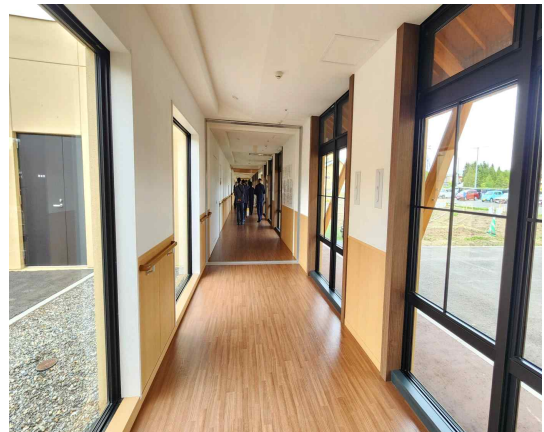
노인을 배려한 화장실 구조



노인 Day-Service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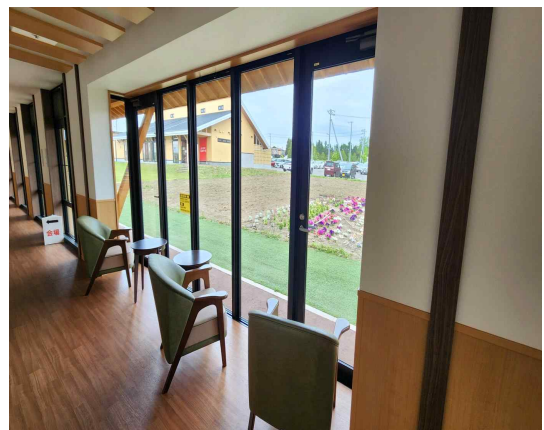
중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



외부로 통하는 개방감이 좋은 통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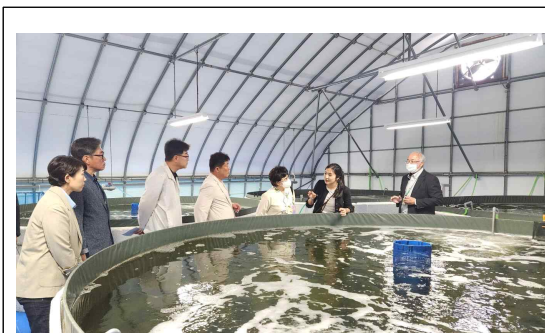
노인개호시설 앞에 텃밭이 있다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는 풍경을 보면서 노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 지역과 함께 교류하고 공생하는 공간 - 커뮤니티 시설

- 코코르크 에베츠가 지향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 또는 ‘지역 사회와의 제휴·협업’ 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온천시설, 레스토랑, 빵집, 보육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실, 텃밭, 잔디공원, 주차장 등 공유 공간을 이벤트 공간으로 대여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설을 방문하도록 유도함.
- 더불어 다양한 마츠리(축제)와 인근 학교 아이들의 공연, 책나눔 축제, 잔디마당을 이용한 비어 축제,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기부하고 싼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순환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마을 자체적으로 온천수를 이용한 복어양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에서 3개뿐인 시설로 수익은 물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는 수익사업이 되고 있음.
- 이를 통해 폐쇄적인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족 또는 일반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이용자에게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고 자립으로 나아가도록 함.



마을 내 복어양식장



온천시설과 레스토랑



일반인 이용가능한 빵공방



레스토랑 내부



교류공간으로 활용되는 잔디마당



기업의 기부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이벤트




축제를 열어 가족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 코코르크 에베츠는 ‘생애 활약의 거리’ 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복합 복지시설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었음. 단순한 복지시설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역 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음.
- 다양한 복지서비스 안에 의료 및 간호 서비스도 충실히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현지의 대학·지역업체와도 협력하여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었고, 지역 사회에 열린 개방적인 시설로 복지시설의 폐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임.
- 동해시도 고령화율 22%의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많은 노인인구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내가 살던 마을에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폐쇄적이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코코르크 에베츠는 복지시설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좋은 본보기가 됨.
- 또한 발달장애인은 보호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됨.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코코르크 에베츠의 경우 그룹홈과 취업교육, 직업 훈련 기회가 연계된 좋은 사례가 됨.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일반 취업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자립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임.

방문 사진

	
<p>간담회 진행</p>	<p>간담회 진행</p>
	
<p>개호시설 시찰</p>	<p>온천시설 시찰</p>
	
<p>동해시 캐릭터 증정</p>	<p>연수단 단체사진</p>

3

쿠루루노모리

기관명	쿠루루노모리	
방문일시	2024. 6. 2. 10:00	
장소	北海道北広島市大曲377-1	
참석자	장은빈 가이드	

■ 기관 소개

○ 쿠루루노모리 현황

구분	내용
위치/ 면적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17.6ha(약 5만평)
운영기관	홋카이도 농업협동조합
개장시기	2010년 7월
주요체험	비닐하우스 체험, 과수원 체험, 논체험(벼심기, 수확 등)
체험대상	어린이, 부모, 초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
직매소	홋카이도산 농축수산물 판매, 주말 농가 직거래
주요특징	소비자와 생산자 연결, 건강한 가정요리 강조, 교육적 체험 제공

○ 쿠루루노모리 배치도



■ 주요 설명 내용 (설명자 : 장은빈 가이드)

○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만남의 광장을 실현하는 곳

- 쿠루루노모리는 소비자들이 농사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체험농장과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직매장이 함께 자리한 공간임.
- 이 같은 체험농장 겸 직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생산부터 소비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느끼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임.
- 쿠루루노모리 조성의 총 투자금액은 8억 5천만엔(한화 약85억원)이며, 채용규모는 파트타임 직원을 포함하여 199명임. 연간 시설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체험시설은 약 1만5천명, 직매소는 26만여명, 레스토랑은 9만5천여명에 달함.
- 직매장에는 근교 농업협동조합에서 갓 수확한 야채, 홋카이도산 쌀과 포도를 이용한 술, 낙농으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우유와 정육 등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음.



○ 교육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역할

- 체험프로그램은 농사 체험과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고, 사계절 수확되는 채소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짐. 체험대상은 어린이와 학생, 보호자 등 다양하며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신청이 이루어짐.
-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월간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매월 전단지를 통해서 공지가 됨. 예를 들면 여름에 수확되는 블루베리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옥수수를 이용한 피자 만들기 등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재차 방문하는 이용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음.
- 또한 ‘GPS 안내시스템을 탑재한 트랙터의 데모 주행’ 등 스마트농법과 ‘모의소를 이용한 착유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됨.
- 특히 어린이에게 농사체험은 작물을 관찰하고, 요리하면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과 함께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며 인기가 높음.
-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쿠루루노모리 광장에 푸드트럭을 통해 인근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푸드트럭을 통한 주말마켓



쿠루루노모리 곳곳에 체험 공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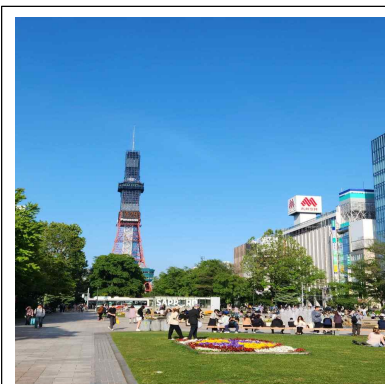
<p>매달 체험프로그램 계획을 담은 전단지</p>	<p>체험 농장</p>
<p>체험농장</p>	<p>연수단 단체사진</p>

■ 기관 방문에 따른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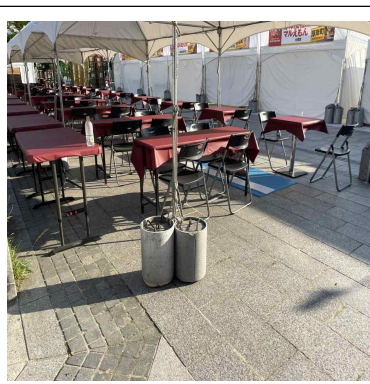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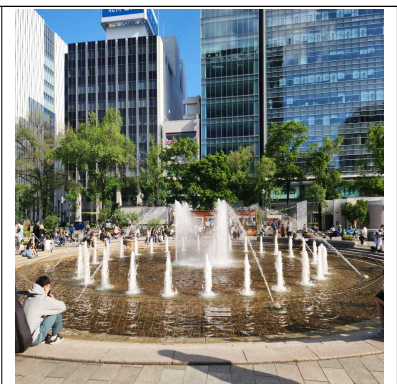
- 쿠루루노모리는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농가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운영모델이 됨. 직매장 뿐 아니라 농업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농촌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동해시도 농산물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계가 있다 보니 판매품목에 한계가 있고, 접근성도 제한 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직매장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특산물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삿포로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 삿포로 오오도리 공원

- 오오도리 공원은 삿포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함. 대표적인 축제는 삿포로 눈축제와 라일락 축제, 여름 맥주 축제 등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줌.
- 지하철역과 도로가 가까이 있는 오오도리 공원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공간이었으며, 공원 내에는 아름다운 꽃밭, 분수, 산책로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도 많이 볼 수 있었음. 다양한 공연도 진행되고 있어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음.
- 편리한 교통과 가까운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지만, 시내의 중심부에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점이 동해시에도 필요한 부분이었음. 동해시도 시내에 명품거리 조성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시민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제 준비 현장의 정숙한 분위기와 정돈된 배치도 인상적이었으므로 이를 우리시 축제현장에도 접목해 볼만함.



오오도리 공원 전경

바닥을 훼손하지 않는
행사 천막 고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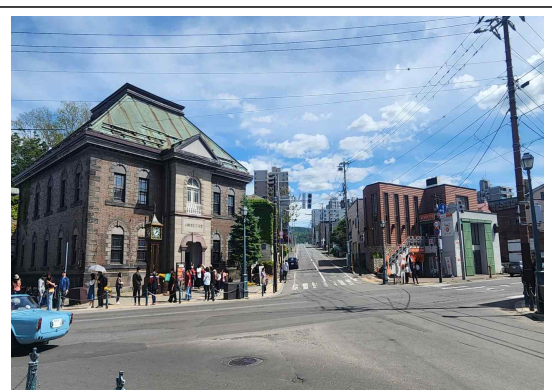
도심지 내 휴식공간

■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자원 - 오타루 운하

- 오타루 운하는 한때 물류의 중심지였으나, 현대화로 그 기능을 잃고 운하 주변을 재개발하여 운하 양쪽에 가로등과 조경을 통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관광명소로 재탄생한 곳임.
- 오타루는 많은 역사적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리모델링하여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히 전통적으로 유리공예로 유명했던 점을 재해석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 동해시는 오타루와 마찬가지로 해안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시설과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산업현장 시설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재해석 되는 것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이를 기반으로 무릉별유천지의 2단계 개발사업과 목호항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
- 더불어 오타루가 홋카이도의 대표 관광지가 된 것에는 역사적 건물과 문화자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카페가 지역 경제를 지탱해주고,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임.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임.



오타루 운하



1912년 지어진 건물을 활용한 오르골당

IV 총평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인구감소 극복

- 히가시가와정의 경우, 기존 고향납세제의 ‘기부자’ 라는 틀에서 벗어나 ‘투자자’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성공한 케이스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특별시민증과 주주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끊임없이 관계인구(생활인구)를 넓혀 나가며 성과를 거둠.
- 이런 점에서 착안하여 기부자의 입장에서 감동할 만한 기념품을 개발하고,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동해시와 접점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문 특전(예시. 기부자에게 관광지 입장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교육환경과 육아정책으로 정주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다.

- 히가시가와정의 ‘너의 의자’ 사업이 성공하며 큰 성과를 보인 것은 하나의 사업뿐 아니라 마을이 그동안 보여준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 과 열린 학습 환경 조성 덕분임.
-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인접하게 배치하여 방과후 시설로 제공하고,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열린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기반이 되었음. 그 기반 위에 아이들에게 제공된 맞춤형 ‘너의 의자’ 사업이 빛을 발하고 지역 사회의 소속감을 높임.
- 우리시도 인구감소를 막고 정주인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프로그램 진행으로 창의적인 성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동해시다움’ 을 잃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

- 이번 연수를 통해 방문한 히가시가와정은 상수도 시설이 없고 철도가 없을 정도로 제한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었음. 또한 8,600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히가시가와풍 건축설계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마을의 미관 저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음.
- 오타루시 또한 역사와 문화를 위한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제한된 여건에서도 관광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때, 마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풍경과 미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함.
- 동해시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목호항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시다움’에 대해 고민하고, 지켜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동해시의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부가가치 제고 방안 필요

-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홋카이도는 청정지역으로 이미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특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 또한 잘 개발되어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농산물 직매장을 통해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방식이 좋은 본보기가 됨.
-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농산물과 음식을 접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직매장이 단순히 판매와 체험만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교류와 이벤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음.
- 동해시도 현재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직거래 매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정된 품목을 극복할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를 위한 이벤트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방과 포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

- 코코르크 에베츠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지역사회로 개방되어 있는 복지시설’이라는 점이었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시설의 서늘하고 폐쇄적 이미지와 상반된 나지막한 건물의 아늑한 분위기는 장애인의 자립에 긍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취업훈련과 취업지원 시설에서의 비장애인과 접점이 적은 반면, 코코르크 에베츠의 경우 일반사회에서의 취업과 같은 상황으로 지역사회 취업에도 적응이 빠르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을 것으로 보임.
- 동해시도 앞으로 복지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길 바람.

○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회여야 모든 시민이 행복하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노인 돌봄인력 또한 수적으로 성장한 환경이지만, 각 서비스가 연계가 되지 않고 질적인 성장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도움을 통해 전문인력을 수급받는 코코르크 에베츠의 경우는 동해시와 같이 작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함.
-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사회적 고립과 부양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임. 코코르크 에베츠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가 살던 마을인 동해시를 떠나지 않고 나이들 수 있는 든든한 거점 복지시설 조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임. 끝.